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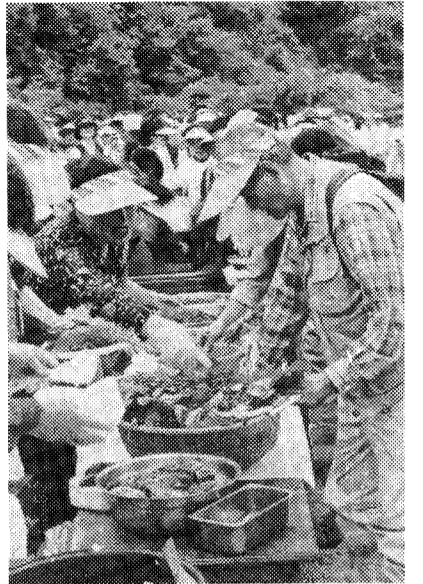
# 환보 싱그러운 자연속 약초향기 "물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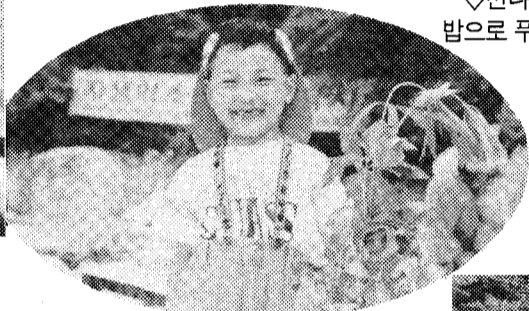
◇생산자와 소비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이건 무슨 약초예요"서울대 약대 지용준 교수님으로부터 약초의 약리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산나물 무침에 약초쌈밥으로 꾸민 식사.



◇"우리몸엔 우리 약초!"이빨 빠진 꼬마에게도

## 채취한 약초는 이렇게

채집한 약초는 물로 깨끗이 씻는다. 특히 뿌리는 깊숙이 묻어 있는 흙까지 공들여 씻어내야 한다. 씻은 것은 돛자리나 신문지에 넣어 말린다.

잎은 2cm정도로 자르고 2일간은 햇볕에 말린 다음 응달에서 말린다. 줄기와 뿌리는 둥글게 잘라서 햇볕에 말리고, 꽃은 햇볕에 하루 말린 다음 응달에 말린다. 열매(과일)와 종자(씨)는 햇볕에 말린다.

바싹 말린 것은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종이 봉지에 넣어서 바람이 잘 통하는 선반이나 용기에 넣어서 보관한다. 보존 기간은 1년 한도이다.



◇"너는야 약초캐는 일일 심마니"



◇"하나라도 더 배워가야지"진지한 분위기



◇계곡물에 발 담그고 삼삼오오 둘러 앉아...

## 관련공무원과 학계에서도

○...우리생약살리기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제3회 자생약초서식지 답사 행사는 약초에 관심있는 소비자 1백 20명과 생산자 50여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연천군 소재 보개산 자락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약초에 관심있는 일반소비자들은 물론 관련 연구직 공무원과 학계에서도 다수 참석, 우리 약초에 대한 일반인들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는듯 했다.

## 쌍화차·생약떡 간식으로

○...우리약초의 다양한 이용가능성을 홍보하기 위해 행사참가자들에게 당귀 산약 솔잎등을 넣어 만든 생약떡과 동굴레차, 쌍화차 등을 간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로 부터 큰 인기를 모았다.

## 야외 약초 교실

○...아침 9시 30분 제기동 미도파 백화점 앞에서 출발한 버스4대는 12시 무렵에야 현지 도착.

미리 준비한 견본을 보며 서울대 지용준 교수로 부터 약초이름과 특성, 채취요령 등에 대한 사전강의를 듣는 참가자들은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다 배워가겠다는 듯 약초견본을 사진 찍기도 하고 필기도구를 준비해 열심

## 이 모 저 모 /자생약초서식지 답사

히 적어가며 시종 진지한 분위기.

## 약초쌈밥에 구수한 숙 된장국

○...각박한 도시를 벗어나 시원한 계곡물에 발 담그고 삼삼오오 둘러 앉아 넓적한 취나물에 밥 한술, 된장국 따먹고 한입 가득 베어 문 찜밥에서는 자연의 향취가 물씬. 여기 곁들인 구수한 숙 된장국은 고향의 맛을 실감케 했다.

행사참가자들은 직접 채취한 취나물, 고사리, 머위잎 등 무공해 청정 산나물로 모처럼 자연속에서의 풍성한 오찬을 즐겼다.

## 어린뿌리는 다시 심어주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20명씩 7개조로 나누어 조장을 중심으로 산행을 시작, 마치 쪽두리 모양의 꽃이 달려 있다 해서 일명 쪽두리 풀로 불리는 세신을 비롯 영경취, 질경이, 산더덕, 복분자, 약썩, 산초, 칩순, 인진썩, 산도라지, 산지구엽초, 애기똥풀, 느릅나무, 고삼, 복나무 등 각양각색의 다양한 생약초들이 일행을 반겼다.

보물찾기 하듯 산더덕 향기를 쫓아 두리번 거리기도

하고, 교수님으로 부터 배운 지식을 심분활용 각양각색의 풀뿌리들을 캐 모아 배낭가득 둘러지고 산을 내려온 사람들은 그러나 뿌리가 아직 어린 것들은 그대로 다시 심어주는 배려도 잊지 않았다.

## 우리 생약살리기 차원

○...이날 행사에서 임연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와 지리적 특성의 영향으로 약효가 뛰어난 국내 자연산 약초들이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하고 『우리 생약협회는 생약차원인 우리약초의 종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생약 살리기 차원에서 이같은 행사를 마련,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 흥겨운 민요가락으로 분위기 압도

○...싱그러운 자연속으로 떠난다는 것만으로도 한껏 자유로워진 사람들은 돌아가며 자기 소개도 하고 답사 행사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약초에 대한 나름대로의 상식등으로 애기 꽃을 피우며 버스안은 제법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수뻘치는 가창력으로 흥겨운 민요가락을 간드러지게 뽑아내 버스 청중들의 박수갈채를 받기도 하고, 한의원을 경영한 적이 있는 한 할아버지는 건강에 좋은 대체조법을 즉석 강의해 많은 인기를 모으기도 했다.